



12 | 2060년대, 10년의 황금기

전쟁, 그 이후 • 308 | 집약적 에너지 혁명 • 314

13 | 2080년, 주사위는 던져졌다

위협하는 멕시코 • 324 | 인구, 기술, 그리고 2080년의 위기 • 329

현금과 석유의 땅 • 334 | 영속적인 긴장감, 멕시코 부흥의 힘 • 341

에필로그 상식은 어김없이 인간을 배반한다 • 357

감수사 100년의 역사를 넘어 인간사 전반을 미리 펼쳐보는 광활한 전망 • 363

역자후기 10년, 20년……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할 미래예측서 • 369

미국시대의 여명기

THE DAWN OF THE AMERICAN AGE

21세기에 대해 내가 단 한 가지 주장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 유럽시대는 끝났고 북미대륙의 시대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100년간 북미대륙은 미국이 지배한다.”

21세기의 사건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늘 공정하다거나 도덕적인 정권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성숙한 문명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단지 미국의 역사가 곧 21세기의 역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몰락의 전야인가, 도약의 새벽인가

미국 사회에는 미국이 몰락의 전야로 다가서고 있다는 뿌리 깊은 생각이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듯 신문기사나 인터넷, 대중 강연은 온통 비참한 전쟁, 방치되고 있는 재정적자, 고유가, 대학에서의 총기 사고, 기업과 정부의 부패, 그리고 결핍에 대한 호소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아메리칸드림은 깨졌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유럽인의 말을 들어보라. 그들은 분명 미국의 호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묘하게도 이 모든 전조와 다양한 이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 미국의 영향력과 번영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재앙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이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심리적 불안정은 이데올로기보다 강한 영향력

미국 문화는 의기양양한 자만심과 짙은 절망의 조울증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만년설이 녹아 익사할 수도 있다거나 동성결혼으로 신이 진노해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자꾸만 자신감을 잃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미국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 몇 가지 통계만 살펴봐도 미국이 파

국으로 내리닫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26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량은 약 14조 달러에 달했는데, 전 세계 GDP가 54조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활동의 약 26퍼센트가 미국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제대국 일본은 미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4,0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 독일, 중국,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많은 사람이 현재 미국의 탈산업화 사례로 한 세기 전에 미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퇴조를 들고 있다. 수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생산량은 2조 8,000억 달러(2006년)에 그쳤지만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2위인 일본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산업생산량을 합한 것보다 큰 규모다.

그러면 원유 부족 문제를 생각해보자. 지금도 부족해 보이는 원유는 앞으로 더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미국은 2006년 한 해 동안 하루 8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 러시아는 97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는 1,070만 배럴로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85퍼센트에 이른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보다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산업생산량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을 비교하면 2006년에 러시아가 22조 4,000억 평방피트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18조 7,000억 평방피트를 생산했다. 그런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그 다음 순위의 다섯 개 국가 총생산량보다 많다. 다시 말해 미국은 에너지를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다.

흥미로운 점은 엄청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밀도가 세계 평균보다 밀돈다는 것이다. 세계의 평균 인구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당 49명이다. 그런데 경제대국 2위인 일본의 인구밀도는 338명이고 독일은 230명인데 비해 미국의 인구밀도는 31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주하기가 어려운 알래스카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인구밀도는 34명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농작이 가능한 지역의 비율로 인구를 비교해도 미국은 아시아에 비해 한 사람당 5배 이상의 땅을 갖고 있고 유럽의 2배 이상, 그리고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는 왜 그토록 강력할까? 간단히 말해 그 해답은 미국의 군사력에 있다. 미국은 침공과 점령이 불가능한 북미대륙을 완벽하게 점유하고 있고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산업 강국은 20세기에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지만 미국 영토에서는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미군은 모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수행했을 뿐이다. 덕분에 다른 국가들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미국은 그럴 필요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사실상 미국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생각해보자. 미국 해군은 전 세계 모든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정크선박이나 아프리카 해안의 연안무역선, 페르시아 만의 유조선, 카리브 해의 유람선 등 지구상의 모든 선박은 우주에 있는 미국 위성의 감시를 받는다. 미 해군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나머지 전 세계의 해군력을 합해도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도 이런 힘을 갖지 못했다. 비록 지역적으로 우세한 해군력은 있었지만 지구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인 해군력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국이 국제무역을 통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에 현존하는 당면문제가 무엇이든 국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불균형이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를 예측하긴 어렵다. 여기에 더해 나는 더욱 폭넓고 놀라운 주장을 펼치려 한다. 미국의 강력한 힘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21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지난 500년간 세계 질서는 대서양 연안의 유럽 국가에 의존해왔

다. 이들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특정 지역 등이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범지구적인 의미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창출했지만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붕괴하고 말았다. 그 힘의 진공상태를 메운 세력이 바로 미국이다.

북미지역은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로부터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몰락에 이르는 500년간 유럽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태평양과 대서양을 국경으로 하는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다.

21세기를 이해하려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 변화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른 세기를 준비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때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힘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와 관련돼 있다.

유럽, 제국은 없다

15세기 이전까지 인류는 자기 폐쇄적이고 고립된 세계 속에서 살았다. 따라서 중국인은 아스텍인을 몰랐고 마야족은 줄루족을 알지 못했다. 유럽인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교류가 없었던 탓에 그들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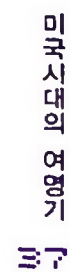
럼 인류는 서로와 무관한 문명을 세우며 살아왔다. 바벨탑은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서양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살고 있던 유럽인이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단일구조로 바꾸면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호주 토착민의 운명은 영국과 아일랜드와의 관계나 영국의 죄수들을 보낼 유형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잉카 왕의 운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계와 직결되었다.

유럽이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 결정지었다. 그런 탓에 다른 국가와 지역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유럽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의 어느 지역도 유럽의 영향력과 힘에서 벗어나긴 어려웠다. 좋은 나쁜든 세계의 모든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회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의 중심축은 북대서양으로, 이 물길을 통제하는 나라가 세계로 가는 고속도로를 지배하는 셈이었다.

그렇다고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했거나 진보한 지역이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이슬람 세계와 달리 유럽은 15세기까지 기술적, 지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변두리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일까? 그리고 500년 전이나 500년 이후가 아니라 15세기에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에 힘을 부여한 것은 바로 자본과 지리적 요소였다. 유럽은 아시아, 특히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대표적으로 후추는



대서양 연안의 유럽